

손에 잡히는 회계감독



IFRS18 '재무제표 표시와 공시' 제정사항을 중심으로 (하편)

2025.12.23

감사위원회 지원센터
(Audit Committee Institute)

손에 잡히는 회계감독

IFRS18 '재무제표 표시와 공시' 제정사항을 중심으로

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(MPM)(1/2)

현행

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'조정영업이익'으로 자발적 공시를 허용

개정

-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(MPM) 정의 기준서 **명문화 - MPM 식별 및 주석공시 의무 발생**
 - * 식별된 MPM의 주석공시 의무사항
 - ① MPM이 기업 재무성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
 - ② MPM 산정방법
 - ③ MPM과 IFRS에서 명시한 중간합계와의 차이조정내역,
 - ④ 각 조정내역에 대한 법인세 및 비지배지분 효과 등



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

(Management-defined Performance Measure, MPM)

- ❖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**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**
 - ①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**공개적인 의사소통**에 사용
 - ② 기업전체 재무성과에 대한 **경영진의 견해** 내포
 - ③ K-IFRS 제1118호 문단 118에서 **열거(*)**하지 않거나, K-IFRS에서 표시나 공시를 **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**
- [예시] 조정 영업손익, 조정 당기순손익 등

(*) IFRS18에서 열거하는 필수 중간합계는 영업손익,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, 당기순손익, 기타포괄손익, 총포괄손익, IFRS18 문단 118에서 나열하는 중간합계로는 매출총이익이나 이와 유사한 중간합계,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및 손상차손 차감전 영업손익(EBITDA), 영업손익과 지분법손익,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등이 존재함.

손에 잡히는 회계감독

IFRS18 '재무제표 표시와 공시' 제정사항을 중심으로

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(MPM)(2/2)

1. A사에서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, 상각비 및 손상차손을 가산한 금액을 산정하고, 해당 금액을 IR 발표자료에서 EBITDA명칭으로 주주에게 공개함. EBITDA는 MPM에 해당?
→ 문단 118(2)에 열거된 항목으로 EBITDA는 MPM에 해당하지 않음.
2. B사는 ROE 및 RDA를 산정하여 경영진 설명서에 기재하여 공개하였음. ROE 및 ROA는 MPM에 해당?
→ 문단 B116(3)에서 재무비율은 MPM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ROE 및 ROA는 MPM에 해당하지 않음.

시사점

재무성과 이해에 유용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점검이 필요



감사위원회 점검사항
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IFRS18 영업손익이 경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익지표로서 기능한지 검토하고, 투자자 소통 및 경영진 평가지표로서의 MPM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는지 확인이 필요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MPM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지표인지 확인 필요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MPM 산출 및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MPM 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, MPM 구성항목을 완전하게 집계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도입 및 내재화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

손에 잡히는 회계감독

IFRS18 '재무제표 표시와 공시' 제정사항을 중심으로

통합 및 세분화

현행

정보의 통합 및 세분화에 대한 명확한 원칙 부재
(ex. 기타비용에 대한 세부내역 불명확 등)

개정

- **'공유되는 특성'을 기준으로 통합 및 세분화**
 -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항목은 통합하고, 중요성 있는 차이는 반드시 세분화
 - ex) 판매비와 관리비 → 판매비/연구개발비/일반관리비로 구분
- 유용한 명칭을 찾기 어려울 경우만 '기타(others)'의 명칭 부여
- 주요 재무제표(유용한 구조화된 요약) 및 주식(중요한 추가정보 제공)의 '역할'을 새롭게 정의
- 영업비용은 성격별 혹은 기능별로 표시가능하고, 기능별로 표시하는 경우 중요한 성격별 항목은 별도 공시 필요

시사점

재무제표 및 주식 간 일관성 확보 및
중요정보 세분화로 표시방식의 개선 점검이 필요

📌 감사위원회 점검 사항



정보의 통합 또는 세분화를 위한 기준 여부에 대한 확인



'기타'로 표시된 항목들은 더 이상 유용한 명칭을 부여하기 어려운 항목들로 집계되었는지 문의

손에 잡히는 회계감독

IFRS18 '재무제표 표시와 공시' 제정사항을 중심으로

IFRS18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대응



IFRS18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^(*)

1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비경상적 항목이 영업손익에 포함.

국내 상장사 중 영업손익이 매출액 대비 1%이상 변동되는 항목은 외화환산손익, 유무형자산 손상차손·처분손익

2 지분법손익 분류변경으로 영업이익 감소

국내 주요 코스피 상장회사 중 지분법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이미 분류한 회사들이 다수 있으며, 지분법손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한 회사는 지주회사들이 대부분임.
이들 지주회사는 IFRS 18 도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.



IFRS18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

1 새로운 범주 및 MPM정의를 대한 내부기준을 조기 확립

2 감사위원회는 손익계산서 및 MPM의 산출근거,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협의

3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구축을 위한 중요도, 위험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추진 및 감독 필요

(*) Source : 한국회계기준원, KARI보고서 'IFRS18'재무제표표시와공시'에 따른 영업이익 변화의 영향